

# 1930년대 후반의 최북단 동인지

## 『시건설』 연구 \*

– 신진 시인들의 기획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

나민애 \*\*

- |                             |
|-----------------------------|
| 1. 서론                       |
| 2. 『시건설』의 전체적 윤곽과 진면모       |
| 1) 당대 최북방, 최장 기간, 최대 지면의 잡지 |
| 2) 여타 동인지와의 관계 및 동인지로서의 성격  |
| 3) 중요 시편들에 대한 원전 확인의 장      |
| 3. 김립인에 의한, 김립인의 이상을 향한 잡지  |
| 1) 편집인 김립인과 시인 김립인의 접점      |
| 2) 김립인의 시세계와 『시건설』 기획의 일치점  |
| 4. 결론                       |

### 1. 서론

이 논문은 ‘1930년대 후반기 시단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당대의 시적 지형도를 구체화하려는 장기적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문학에서의 1930년대 후반이란, ‘제2의 동인지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동인지 기획 및 동인 중심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다.<sup>1)</sup> 그리고 이 활발함을 가능하게 했던 시인들은 세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2927446).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부교수.

1) 강호정, 2011 「1930년대 후반 동인시지연구」 『한국학연구』 39: 나민애, 2014 「『맥』지와 함북 鏡城의 모더니즘: 京城 모더니즘의 以後와 以外」 『한국시학연구』 41: 2015 「1930년대

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대개 1930년대 전반과 중반을 기점으로 등단한 신진 시인들이었다. 1930년대 후반은 새로운 조선시의 활력이 요청되는 시기였으며, 이 요청에 부응하는 의미로 시단의 신진 세력이 구체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시인들은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시단의 중진이자 원로 계층이 되었다는 점에서 1930년대 후반을 해방 전후의 접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1930년대 후반이 문학의 암흑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기라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진들의 활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시기 변화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의의에 대해 고찰할 때 1930년대 후반의 창조적인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sup>2)</sup>

앞서 1930년대 후반을 ‘제2의 동인지기’라고 표현했듯이, 이 당시 신진 시인들이 주축이 되어 탄생된 잡지는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본고는 『시건설』이라는 잡지에 주목한다. 한국 잡지사에서 『시건설』은 매우 독특하고 이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잡지는 현대잡지사에서 잊혀져왔다. 본고에서 이례적이며 잊혀진 이 잡지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당시 『시건설』은 여타의 신간 잡지 지면들에서 자주 언급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다. 본론에서 논의될 자료를 보면 『시건설』은 지금의 인식과 달리, 상당히 비중 있는 잡지였고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졌다. 둘째, 서지만을 놓고 본다면 이 잡지는 평복 중강진, 즉 우리 국토의 최북단에서 발간된 잡지여서 자리적으로는 중앙 문단과 매우 멀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 면면을 살펴보면 『시건설』이 단순히 지방 문인들의 제한된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건설』은 중앙 문단과 대등한 위치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잡지였다.셋째, 『시건설』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들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신세대 시인들이었다. 이들의 활약과 결속을 담고 있는 『시건설』은 신진 시인들의 ‘조선시’에 대한 기대가 중앙 문단에 국한된 국소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방의 문단으로까지 파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후반 『시학』지와 신세대 시인의 시적 이상』, 『어문연구』 43-1 참조.

2) 1930년대 후반의 ‘세대론’과 세대 교체 현상에 대해서는 나민애, 2010 「모더니즘의 본질과 시의 본질에 대한 논리적 충돌: 1930년대 후반 시단의 세대논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2 참조.

이렇게 『시건설』은 당대에도 비중이 큰 잡지였고, 신인 시인들의 사이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잡지였다. 분명 이 잡지는 1930년대 후반 시단의 지형도와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자료이다. 그렇지만 『시건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선행 논문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수준의 잡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이유는 지방문학이 중앙문단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는 연구 경향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시건설』이 단순히 지방에서 출간된 잡지가 아니라 북방의 잡지라는 점도 들 수 있다. 『시건설』은 중강진에서 발간되었는데 이 지역은 분단 이후 남한 문학이 아닌 북한 문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 문학 연구의 측면에서 보아도 다소 낯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중강진의 문학인들은 중앙 문단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조선 문학을 함께 견인했으며, 북한 지역에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상 문학이 강제되기 이전 지방 문학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시정(詩情)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잡지는 중앙 문단의 신세대 시인들의 활동과 북방 지방 문단의 독특함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고는 『시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적인 의의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1930년대 후반 신세대 시인들의 활약과 전체적인 시단의 동향을 확보하고자 한다.

## 2. 『시건설』의 전체적 윤곽과 진면모

### 1) 당대 최북방, 최장 기간, 최대 지면의 잡지

『시건설』은 1936년 11월 평북 중강진에서 출간된 시 전문지로서 1940년 6월 8집으로 종간되었다. 이 잡지는 조선의 북방, 그것도 최북단에서 창간되었다. “창간호는 찾을 길 없었고, 7집과 8집을 만날 수 있었다.”는<sup>3)</sup> 연구자의 언급이 있을 정도로 이 잡지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창간호를 찾을

---

3) 최덕교, 2004 『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85면.

수 없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잡지를 전권 소장한 기관은 찾기 어렵지만 이 잡지의 1집부터 8집까지 전권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sup>4)</sup> 본고에서는 『시건설』의 전모 파악을 위해 흩어져 있는 1-8집, 즉 모든 『시건설』을 고찰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각 호가 출간된 상세는 다음과 같다.

제1집(1936. 11) / 제2집(1937. 9) / 제3집(1937. 12) / 제4집(1938. 1) / 제5집  
(1938. 8) / 제6집(1938. 12) / 제7집(1939. 10) / 제8집(1940. 6)

위의 서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건설』은 월간이나 계간은 아니었다, 원고 청탁이나 수집, 편집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여력이 되면 다음 호를 출간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략적으로 가늠해 본다면 평균적으로 연간 2권, 한 해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번씩 출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건설』이 반년 간 잡지를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고 출간 간격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1936년 11월에 1집을 내고는 곧 2집이 출간될 것이라 예고를 냈지만 정작 2집이 나온 시기는 다음 해(1937) 9월이었다. 그런데 이 10개월을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사정이 있다. 준비하는 측은 10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품을 모으고 기획을 준비했다. 1집이 44면이고 2집은 거의 배에 가까운 71면이라는 사실에서 그 혼적을 찾을 수 있다. 2집을 준비하는 10개월 동안 『시건설』은 지면을 확장하고 기획에 집중하고 내실을 다쳤던 것이다.

당대 『문장』이나 『인문평론』 등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출간되었지만, 신인 시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시 동인지의 경우 대개 열악한 상황이었다. 『낭만』, 『자오선』, 『옹계』도 창간호로 끝났고, 『시인춘추』도 2호로 끝났다. 『맥』도 6집, 『시학』지도 4집에서 끝이 났다. 그런데 『시건설』은 무려 4년간 총 8집까지 발간되었다. 이 발간의 지속성만 놓고 보아도 『시건설』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시건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창간호-7집, 고려대학교도 귀중본 서고에 1-5집,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에 5-8집(영인본) 등으로 나누어 소장되어 있다. 즉 시건설은 창간호부터 8집까지 전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6집의 7번째 작품인 최재형의 「애상의 밤」, 8번째 작품인 장만영의 「INITIAL」은 영인본과 디지털 자료 모두 훼손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양적으로도 『시건설』은 충실한 편이었다. 『시건설』은 최대 71면, 최소 35면의 볼륨을 지니고 있었다. 중간 수준으로는 44면, 48면, 57면 등의 수준을 유지했다. 마지막 8집만이 광고 포함 40매, 광고 제외 35면이었다. 이러한 양적 측면은 당시 여타 지방 문학잡지나 중앙 문단의 상황과 비교할 때 부실했다고 볼 수 없다. 1936년 『시인부락』은 32면이었고, 1937년 『자오선』은 57면이었다. 지방 문학의 하나인 『시인춘추』(1937)는 31면에 불과했고 같은 북방 잡지인 『맥』(1938)이 38면, 『시림』(1939)이 22면이었다. 50면에서 70면 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잡지로는 1939년의 『시학』 정도가 유일했다. 그런데 『시학』이 총 1년간 모두 4회 발간되었던 데 비해 『시건설』의 총 지속 기간과 총량은 더 많다. 이런 비교 군을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시건설』의 외적 측면은 상당히 탄탄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건대 『시건설』은 당시 1930년대 후반 신진 시인들이 출간한 잡지 중에서, 가장 오래 발행된 잡지였을 뿐만 아니라, 총 지면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장 많은 양을 자랑하는 잡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여타 동인지와의 관계 및 동인지로서의 성격

『시건설』은 조선의 최북단에서 탄생했다. 인쇄소는 중강인쇄소, 발행소는 평안북도 중강진 소재의 ‘시건설사’로 되어 있다. 이런 지역 조건만 놓고 본다면 『시건설』에 대해 변방에 고립된 활동에 불과하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건설』의 장점은 이러한 지역적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었다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시건설』은 중앙 문단, 나아가 다른 지역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고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시건설』과 다른 잡지들의 관계에 있어 맨 처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맥』과의 관계이다. 『맥』지 3집(1938. 10)에는 “시지 시건설 제6호” 광고가 실려 있다. 또한 『시건설』의 주축이었던 김람인은 『맥』지 1, 2, 3, 4집에 걸쳐 총 네 번이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두 잡지의 중심인물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임을 짐작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맥』과 『시건설』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 유사성은 ‘지방 문학’, ‘신인 기반’, ‘북한 지역’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맥』은 함북 경성 지방을 주축으로 한 지방 동인지로서 『시건설』과 마찬

가지로 북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었다. 당대 『시인춘추』, 『생리』, 『초원』, 『북향』 등 지방 문학 잡지를 포함하여, 『시건설』이나 『맥』과 같은 지방 문학 잡지는 중앙 문단에 대한 일제의 감시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또한 『맥』과 『시건설』은 원로나 중진이 아니라 신진 시인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건설』과 『맥』의 연결지점이 위와 같다면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시건설』과 『시학』의 관계이다. 『맥』의 동인이 대거 흡수되어 창간된 『시학』지에서도<sup>5)</sup> 『시건설』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시학』 1집(1939. 3 발행, 표지에는 4월호 표기)에는 「수록 설문 : 시인체씨, 시단인의 동인시지관(同人詩誌觀)」이 실린 바 있다. 이 설문 안에서 시인 이찬은 “맥, 시건설, 시인춘추, 웅계 등”을 특히 주목해야 할 동인시지 현상으로 꼽았다.

비단 이찬의 언급에서만 『맥』, 『시건설』, 『시인춘추』, 『웅계』 이 네 잡지가 나란히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당대 신인 시인들의 견해, 즉 적어도 『맥』과 『시건설』에 참여했던 그룹 안에서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잡지가 신인의 가능성에 타진하고 대변하는 당대의 대표적인 문예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시학』지 1집에 실린 「동인시지의 현재와 장래」라는 설문을 들 수 있다.

이 설문은 『시학』지가 다른 잡지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sup>6)</sup> 이때의 설문 대상 역시 『맥』, 『시건설』, 『시인춘추』, 『웅계』 네 동인지이다. 이 설문에서 알 수 있는 바, 『시학』지 기획자 역시 이찬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대표적인 동인시지로서 『맥』, 『시건설』, 『시인춘추』, 『웅계』를 꼽았다. 적어도 『시학』 측의 편집측은 『시건설』을 당대의 ‘동인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외부의 시선에서 『시건설』은 동인지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시건설』 내부적으로도 스스로를 ‘동인지’로 이해하고 있었다. 『시학』지가 동인지에 대한 설문을 제시했을 때에도 『시건설』 측은 동인지로서의 답변에 응했다. 설문에 참여했다는 것은 『시건설』 측 역시 자기 잡지를 동인지로 인

5) 『맥』지의 동인 현황에 대해서는 나민애, 2014 앞의 논문, 『시학』지의 편집진과 『맥』지와의 연관성을 나민애, 2015 앞의 논문 참조.

6) 『시학』지는 당대의 동인지를 선택하여 동인지의 경향을 설문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창간 호를 준비하면서 미리 동인지의 주장, 방침, 희망의 세 가지 항목을 질문하고 각각의 동인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그것을 정리하여 설문으로 실었다.

정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다른 추가적 근거로서 김람인의 언급을 들 수 있다. 『시건설』 1집의 말미에는 ‘嵐人’이 쓴 「編輯을 끝내고」라는 글이 있다. 그 글의 마지막 줄에는 “동인제씨의 수고가 많았다. 우리의 땀이 빚어지는 결정이 있다면 무엇을 사양하겠가…”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주간이었던 김람인 역시 ‘동인들’이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학』 측의 편집진은 『시건설』을 동인지로 보았고 『시건설』 역시 스스로를 동인지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시건설』은 동인지였을까. 동인지였다면 어떤 동인지였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건설』의 시인 참여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1〉 『시건설』 참여 문인 명단

순서	발간 시기	작품 수록 시인
1집	1936.11.	김해강(金海剛), 김창술(金昌述), 신석정(辛夕汀), 정강서(鄭江西), 이찬(李燦), 송순일(宋順鎰), 윤곤강(尹昆崗), 유치환(柳致環), 한흑구(韓黑鷗), 진우촌(奏雨村), 서정주(徐廷柱), 김병호(金炳昊), 김람인(金嵐人) 총 13인
2집	1937. 9.	박영포(朴永浦), 이설촌(李雪村), 이혜영(李蕙英), 마명(馬鳴), <sup>7)</sup> 고영민(高嶺民), 홍성호(洪星湖), 박남수(朴南秀), 정호승(鄭昊昇), 박영종(朴泳鍾), 을파소(乙巴素), 최송파(崔松坡), 한남산(韓南山), 장수칠(張壽哲), 장만영(張萬榮), 이달근(李達根), 이해문(李海文), 이예중(李禮中), 김진태(金鎮泰), 손풍산(孫楓山), 안용만(安龍灣), 민태규(閔泰奎), 김동리(金東里), 임연(林然), 이원우(李園友), 양운한(楊雲間), 김광섭(金光燮), 서정주(徐廷柱), 한흑구(韓黑鷗), 김우철(金友哲), 박아지(朴芽枝), 신석정(辛夕汀), 이정구(李貞求), 하보(何步), 조벽암(趙碧岩), 박세영(朴世永), 김람인(金嵐人), 김해강(金海剛) 총 37인
3집	1937.12.	김람인(金嵐人), 유치환(柳致環), 윤곤강(尹昆崗), 소성(蘇星), 김조규(金朝奎), 신석정(辛夕汀), 이찬(李燦), 서정주(徐廷柱), 이원우(李園友), 한흑구(韓黑鷗), 진우촌(奏雨村), 김우철(金友哲), 김광섭(金光燮), 정호승(鄭昊昇), 이석훈(李石薰), 김광주(金光洲), 김병호(金炳昊), 김해강(金海剛), 박남수(朴南秀), 이해영(李蕙英), 마명(馬鳴), 박영포(朴永浦), 고영민(高嶺民), 홍성호(洪星湖), 장수칠(張壽哲), 이고산(李孤山), <sup>8)</sup> 이홍석(李洪錫), 용악(庸岳), 혜황(彗晃), 성루(星淚), 송파(松坡), 김려순(金麗淳), 김용재(金龍濟) <sup>9)</sup> 총 33인
4집	1938. 1.	김람인(金嵐人), 김용재(金龍濟), 손풍산(孫楓山), 유치환(柳致環), 양운한(楊雲間), 서정주(徐廷柱), 박남수(朴南秀), 하보(何步), 이찬(李燦), 장만영(張萬榮), 이예중(李禮中), 황민(黃民), 홍성호(洪星湖), 이설촌(李雪村), 이원우(李園友), 한흑구(韓黑鷗), 김우철(金友哲), 소성(蘇星), 마명(馬鳴), 조마사(趙麻吏), 정호승(鄭昊昇), 김광섭(金光燮), 박아지(朴芽枝), 김광주(金光洲), 송승춘(宋勝春), 문병래(文秉來) 총 26인

5집	1938. 8.	임화(林和), 신석정(辛夕汀), 김광섭(金珖燮), 유치환(柳致環), 민태규(閔泰奎), 한흑구(韓黑鷗), 하보(何步), 황민(黃民), 김조규(金朝奎), 윤곤강(尹昆崗), 장만영(張萬榮), 이원우(李園友), 이해영(李惠英), 목일신(睦一信), 차은철(車銀喆), 이설촌(李雪村), 소성(蘇星), 홍성호(洪星湖), 김우철(金友哲), 박노춘(朴魯春), 마명(馬鳴), 장수철(張壽哲), 고영민(高嶺民), 마사(麻史), 김광섭(金光燮), 김람인(金嵐人), 양운한(楊雲閒), 김기석(金基錫), 홍효민(洪曉民), 유진오(俞鎮午), 정래동(丁來東), 한효(韓曉) <sup>10)</sup> 총 32인
6집	1938.12.	마명(馬鳴), 이원우(李園友), 이찬(李燦), 박남수(朴南秀), 문병래(文秉來), 홍성호(洪星湖), 최재형(崔載亨), 장만영(張萬榮), 이민(李民), 윤재도(尹載道), 황민(黃民), 이석(李石), 장수철(張壽哲), 박노춘(朴魯春), 서정주(徐廷柱), 홍순철(洪淳哲), 조마사(趙麻史), 이상호(李相昊), 양운한(楊雲閒), 정호승(鄭昊昇), 이해문(李海文), 김우철(金宇哲), 한흑구(韓黑鷗), 차은철(車銀喆), 김람인(金嵐人) 총 25인
7집	1939.10.	유치환(柳致環), 소성(蘇星), 김용제(金龍濟), 서정주(徐廷柱), 이원우(李園友), 박남수(朴南秀), 마명(馬鳴), 장만영(張萬榮), 박염인(朴念仁), 홍성호(洪星湖), 김석수(金析洙), 신석정(辛夕汀), 이찬(李燦), 모윤숙(毛允淑), 조마사(趙麻史), 최재형(崔載亨), 윤곤강(尹昆崗), 황민(黃民), 장수철(張壽哲), 차은철(車銀喆), 김광섭(金珖燮), 조연현(趙演鉉), 윤재도(尹載道), 임대섭(林大燮), 을파소(乙巴素), 이예중(李禮中), 조섭재(趙燮濟), 이가종(李家鍾), 조인규(趙仁奎), 이상인(李相寅), 진우준(奏雨村), 박노춘(朴魯春), 정호승(鄭昊昇), 정동(丁東), 목일신(睦一信), 이설촌(李雪村), 한흑구(韓黑鷗), 홍순철(洪淳哲), 안용만(安龍灣), 김람인(金嵐人) 총 40인
8집	1940. 6.	박남수(朴南秀), 마명(馬鳴), 박염인(朴念仁), 김태오(金泰午), 이찬(李燦), 장만영(張萬榮), 고영민(高嶺民), 양운한(楊雲閒), 한흑구(韓黑鷗), 장수철(張壽哲), 문병래(文秉來), 김목랑(金木浪), 한옥(韓旭), 남석종(南夕鍾), 장응두(張應斗), 조연현(趙演鉉), 김광섭(金光燮), 이상인(李相寅), 한백곤(韓白崑), 김대봉(金大鳳), 김해강(金海剛), 김람인(金嵐人) 총 22인

위의 명단을 일별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참여 시인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 중앙 문단도 아닌 최북방의 지방에서 나온 잡지에 평균 28명 이상의 시인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 잡지의 위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위의 명단 중에서 1회 수록에 그친 시인은 김진태, 임연, 김창술, 김려순, 김기석, 정강서, 이홍석, 송순일, 모윤숙, 이가종, 장응두, 송승춘, 박영종, 박세영, 이

7) 마명(馬鳴)의 본명은 마용석(馬龍錫)이다.

8) 이고산(李孤山)은 이해문이다.

9) 김용제는 시평을 수록함.

10) 김기석(金基錫), 홍효민(洪曉民), 유진오(俞鎮午), 정래동(丁來東), 한효(韓曉)는 산문을 수록함.

석훈, 이상호, 이정구, 조섭제, 홍효민, 유진오, 정래동, 김동리, 조벽암, 김석수, 한백곤, 김대봉, 남석중, 한육, 김목랑, 김태오, 정동, 조인규, 임대섭, 이석, 이민, 한효, 임화, 송파, 성루, 혜황, 용악, 임연이다. 그리고 2회 수록한 시인은 김광섭(金珖燮), 김조규, 손풍산, 민태규, 윤재도, 박염인, 김병호, 김광주, 최재형, 박영포, 박아지, 안용만, 목일신, 홍순철, 을파소, 이상인, 조연현을 들 수 있다. 기성 문인으로는 임화나 박아지 등이 참여했지만, 비중은 매우 적었고 대부분은 신인들이었다. 이 중에 눈에 띄이는 인물은 을파소, 즉 함북 출신의 김종한과 『낭만』의 중심인물이었던 민태규, 그리고 『액』 동인 활동 중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김조규 등이다.

이어 3회 투고한 시인에는 김용제, 이예중, 이해문, 문병래, 박노춘, 진우촌, 이혜영, 차운철, 하보가 있고, 4회 투고한 시인에는 김해강, 윤곤강, 이설촌, 조마사, 고영민, 황민, 소성이 있다. 5회 투고한 시인은 김광섭(金光燮), 김우철, 신석정, 유치환, 장만영, 양운한, 장수철, 정호승이며 6회 작품을 수록한 시인은 이찬, 이원우, 서정주, 홍성호, 박남수이다. 7회 등장한 시인은 마명(馬鳴)이며 매 호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인물로는 한후구, 김람인을 들 수 있다.

총 8회 발간 중에서 매호 등장 인물이 있다는 것, 적어도 6회 이상 출현한 인물이 다수이며 확실하다는 점을 보면 중심축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성면을 살펴보아도 동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확연하고, 외적으로도 동인지라 부르고, 내적으로도 동인지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시건설』가 지난 동인지의 성격은 일반적인 동인지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이 잡지는 가치를 같이하는 문인들의 상징적인 지면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건설』은 ‘동인지의 성격이 매우 약한 동인지’라고 말할 수 있다. 『시건설』은 동인, 매체 등 동인지의 외적인 조건은 확보하고 있지만, 동인지의 내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 동인들을 타 동인들이나 집단과 구별하는 문학적 에콜(ecole), 기치, 주장 등이 명확하지 않다.<sup>11)</sup> 그런데 명확하지 않음을 근거로 『시건설』에 대해서 실패, 결여, 부족 등의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

11) 강호정은 당대나 요즘이나 동인지의 역할이 문학 이념의 제시에 있다고 보았다(강호정, 앞의 논문, 111면).

인다. 자신들의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사실은 『시건설』지의 주축 역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sup>12)</sup> 오히려 『시건설』은 드러내놓고 ‘주장 없음의 주장’을 자신들의 주장으로 펼치고 있었다. 이 점이야말로 『시건설』지의 시대적 의의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1930년대 후반의 모색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이다. ‘주장 없음의 주장’을 추구하는 『시건설』지의 상황은 다음의 답변을 참조로 확인할 수 있다.

1. 주장 – 『시건설』의 뚜렷한 주장은 무(無)다. 위선 시의 결핍한 오늘에 있어서 시의 왕성화를 꾀하는 혼성시단(混成詩團)을 이루워 가지고 그 꿈에서 진실(眞實)하고 강력(強力)한 하나의 대오(隊伍)가 생기는 날 시의 신영토를 개척하여 보려는 의진(意盡)을 나만이 가지고 있다.
2. 방침 – 될 수 있는 대로 조선시인이란 시인의 작품을 전부 망라하여 보려고 한다. 우리시인총보인 대시집도 하나 내 보고.
3. 『시건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백만인이 생기기만-

- 「설문 응답」 『시학』 1

위 인용문은 『시학』이 제시한 설문에 대해 『시건설』이 내놓은 답변이다. 이때 『시건설』은 6집을 내고, 7집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시건설』 전체 발간 시점을 생각할 때 활동의 후반기에 해당한다. 초창기에는 문학적 입장이 미완이었다 할지라도, 이때는 후반기이므로 자신만의 색깔을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도 『시건설』은 자신들의 문학적 주장과 목적이 ‘무(無)’라고 밝히고 있다.<sup>13)</sup>

스스로의 색깔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대신 『시건설』이 얻고자 했던 실익(實益)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의 왕성화”와 “혼성시단”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 그리

12) 이에 대해서 선행 연구로서 강호정의 논의, 특히 “1930년대 동인지 문단은 1920년대의 동인지 문단과는 달리, 동인으로서의 자긍심이나 강한 결속력보다는 동인지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동호인의 성격, 무명 문인들의 습작과 등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체로서의 성격이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구절에 주목할 수 있다(강호정, 앞의 논문, 114면).

13) 1930년대 후반 동인시지를 두루 살핀 강호정의 앞의 논문 역시 『시학』을 제외하고는 『시건설』, 『맥』, 『웅계』 주장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고 이와 대조적인 표현은 “시의 결핍”이다. 조선시가 결핍되어 있으며 가난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맥』지와 『시학』지를 비롯해서 당대에 상당히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위의 설문은 김람인 작성으로 추정되는데 응답자는 시의 부흥을 위해 『시건설』이 필요하며, 그 부흥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시건설』에 모인 시인들의 공통 기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대신, 참여 시인의 폭을 넓히고 시 문단의 양적 확대를 꾀하고 흥행을 유도하는 것이 『시건설』지의 목적이었다.

“본지 제2집은 창간호보다 수술도 투텁고 질적으로 높어온 감이 있다. 그리고 지방적 동인적인 쎹트적 냄새가 없고 전시단의 멤버를 망라하랴는 편집적 수고가 역력히 보인다. 금일에 있어서 조선의 시전문지로는 본지가 양적으로 제일 큰 존재가 많일가 한다.”

- 김용제, 「시단시감」 『시건설』 3

김용제는 『시건설』에 「시단시감」이라는 시평론을 포함, 총 3회 등장한다. 그의 언급에는 『시건설』에 지방 동인지의 냄새가 없다는 말, 전시단을 망라하려 한다는 말이 들어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더욱 『시건설』을 동인만을 위한 잡지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동인지 성격을 약화시키면서 범문단적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자칭·타칭 동인지로서의 『시건설』이 지닌 모순적 특징이자 목표였다. 『시건설』은 지방 동인지라는 외형으로 출발했으면서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고, 이를 위해 동인의 명확함보다 문인의 확대를 지향했다.

전운(戰雲)에 밀려 문학 자체의 생산성이 떨어지던 시대이니만큼 『시건설』의 ‘시 확장’이라는 시대적인 목적의식은, 특정 애콜의 주창보다 우선시되는 것이며 그 시대에 신인 시인으로 출발한 시인에게 필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고민은 특정 동인들이 개성적으로 공유하는 사조나 유파, 경향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범문단적이므로 『시건설』은 스스로 동인지임을 주장하나 사실상 동인지의 명확한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인지 성격이 희미한 동인지’는 1930년대 후반의 특징이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렇게 특별한 동인지가 추구되고 필요했다는 사실이야말로 1930년대 후반의 시단이 어떠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

초가 된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1930년대 후반의 동인지답지 않은 동인지『시건설』은 조선 문단을 구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지닌 신인 시인들이, 창작 확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였다. 동인의 개성을 강조할 수 있을 만큼 문학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인 양적 확대와 발언 지면 확보를 통해 문학의 명맥을 살려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1930년대 후반 신진 문인들에게는 깔려 있었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은 명목뿐인 ‘동인지’를 활성화했던 것이다.

### 3) 중요 시편들에 대한 원전 확인의 장

동인지 추구 목적보다는 신인 시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조선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앞섰기 때문에『시건설』은 매우 다양한 시인들의 다양한 경향을 담고자 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시건설』에 수록된 작품들을 하나의 사조나 성격으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품 수도 지면도 당대의 여타 시집지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하나로 유형화하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경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시건설』에는 북방의 정서를 강조하는 시편이 꽤 자주 수록되었다. 김람인, 김우철, 소성 등이 대표적 시인이고, 그들은 주로 북방, 로서아, 나타샤 등등을 소재로 삼거나 추위와 북방의 옹기 등을 소재로 삼았다. 다음으로, 한흑구나 김조규와 같이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계열의 작품이 있다. 특히 한흑구는 1929년 도미하여 시카고의 노스파크 대학에서 영문학을 배웠던 인물인 만큼, 작품 세계가 상당히 지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평론과 영문 번역을 동시에 했는데 시에도 서구적 지식의 분위기가 한껏 드러나 있다. 다음으로,『시건설』에서는 윤곤강이나 박남수, 장만영과 같이 전통적이며 서정적인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유치환이나 서정주와 같은 소위 생명파의 작품들도 찾을 수 있다.

특기할 점은『시건설』에 후대에 유명해진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시건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록된 작품 중에는 우리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되어 온 작품이 많다. 이 명작들의 원전이 발

표된 지면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시건설』은 잡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건설』에는 장만영 시인의 대표작인 「달 포도 잎사귀」(2집)가 수록되어 있다. 장만영은 1932년 등단한 시인으로서 『시건설』지에는 그의 시집 『양』(1937)이 좋다고 추천한 의견(4집에 실린 이석훈, 신석정의 설문 답변)도 실린 바 있다. 이 외에도 장만영의 초기 서정을 아름답게 잘 드러낸 작품으로 시 「호수로 가는 길」과 「조개」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서정주는 총 6번, 모두 7편의 작품들[「절망(絶望)의노래-부흥이」, 「부흥아, 너는」, 「흐르는 불」, 「瓦家의傳說」, 「수대동시(水帶洞詩)」, 「여름밤」, 「자화상」]을 『시건설』에 수록했다. 특히나 7집에 수록된 시 「자화상」은 서정주의 대표작이면서 또한 외할아버지의 실종 시기가 언제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작품이기도 하다. 『시건설』에서는 그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문에는 외할아버지의 실종 시기가 갑술년으로 되어있다. 서정주가 나중에 이 시기를 갑오년으로 수정했던 일화는 유명하다.<sup>14)</sup> 나아가 이 잡지에서 유치환과 박남수와 한흑구의 초기 작품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으며 윤파 소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김종한의 시와 『맥』지의 핵심이었던 윤곤강의 작품도 발견할 수 있다. 『시건설』은 193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등단한 신인 시인들, 이 시기 소장 시인으로서 한참 문학적 포부를 지니고 있었던 시인들, 후대 해방 한국 문단에서 중심을 차지하거나 중요성을 인정받은 시인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은 또 있다. 『시건설』지에 단 한번 시를 발표한 시인 중에는 ‘용악(庸岳)’이라고 표기된 시인이 있다. 여기에 실린 시의 제목은 ‘밀림(密林)’이다. 이 시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시인 이용악의 작품일 가능성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번의 시전집에 기초할 때,<sup>15)</sup> 지금까지 정리된 이용악의 작품 목록 중에 ‘밀림’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없다. 만약 이용악의 작품이 맞다면 이후 전집에 추가되어야 할 작품이 된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14) 외할아버지의 실종 시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갑술년(1874)을 갑오년(1894)로 바꾸었다 (최현식, 2003 『서정주 시의 근대와 반근대』, 소명출판, 329면).

15) 이용악(윤영천 편), 1988 『이용악시전집』, 창작과비평사; 이용악(곽효환·이경수·이현승 편), 2017 『이용악전집』, 소명출판.

고요한 어둠

맑은 냄새 발굽에 고이다

당나귀 물고 다니던 옛사람이  
사람마다 검은곰을 맞나  
두번 오질못했다는 숲  
쌓여 쌓여서 썩은 나무닢에 문힌  
비밀의 해골을 둘쳐 어루만지고 싶다.

놀안 뿔사슴이 이리저리  
뛰여 뒷재를 넘어가도  
다람쥐들아  
너는 애달픈 전설을 오로지 이져버리고  
양깃한 내손끝을 믿엄직이 엿보아다오.

어둠이 낳은저녁  
불붙는마음 옛을 흐르다

- 용악(庸岳), 「밀림(密林)」 전문, 『시건설』 3

함경북도 경성 태생인 이용악 역시 김람인처럼 북방 출신이다. 이용악은 1935년 3월에 시 「패배자의 소원」을 『신인문학』에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37년 12월에 발간된 『시건설』 3집에 '용악'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된 시가 이용악의 시가 맞다면, 그가 등단한 지 2년 정도 지난 후 발표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등단 초창기 작품이 되는 셈이다. 신인 중에서도 신인이어서 그랬는지 '용악'이라는 시인의 시 「밀림」은 다른 시편들과 다르게 편집되어 있다. 보통의 시편들은 지면을 나누지 않고 전체 지면을 활용하여 인쇄되었는데 유독 3집의 「밀림」이 수록된 51쪽은 세 개의 줄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고 활자가 1/3 수준으로 작다. 3단 구성의 맨 윗칸은 '용악'의 시, 2번째 칸은 '혜황'의 시 「벼레한숨」, 마지막 3번째 단은 '성루'의 「봄」이라는 작품이 인쇄되어 있다. 51면에 이어 52면도 한면이 3단으로 나뉘어 '송파'와 '김려순'의 시를 수록해 놓았다. 이 다섯 명은 3집의 가장 끝부분에 수록되었다. 이때를 제외하고 한 면을 3단으로 나누어 작품을 수록한 경우는 없었다.

1937년경 이용악은 일본 조치대학(上智大學)에 유학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용악의 등단 역시 일본 유학시절에 이루어졌다.<sup>16)</sup>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도쿄에서 발행된 시집 『분수령』(1937) 이후라고 알려져 있고, 이 시집에 대한 언급 역시 『시건설』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17)</sup> 이용악은 동향 출신 시인인 김종한과 이산 김광섭, 김기림 등과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18)</sup> 그중 김종한(을파소)과 이산 김광섭은 『시건설』지에 각각 두 번씩 참여한 바 있다. 적어도 『시건설』지의 몇몇 참여 인물은 확실히 시인 이용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건설』지에 북방 출신 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는 상황까지 놓고 보면 3집의 ‘용악’은 이용악일 가능성성이 크다.

아울러 김용제의 작품 역시 주목을 요한다. 김용제는 전향 이후 문학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일찍이 나카노 시게하루에게서 “조선은 대륙이 아니라 반도이지만, 김용제의 시풍은 대륙적이다”라는 찬사를 받은 시인이다.<sup>19)</sup> 그는 일본 프로 운동가들과 교류하고 사상 운동과 문학 운동에 앞장섰으나 30년대 말 전향하여 친일문학인이 되었다. 1939년 10월 발간된 『시건설』 7집에는 김용제의 시 「혼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김용제의 개인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향 직전의 상황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오무라 마스오의 말에 의하면 김용제가 전향하기 직전의 원고는 1938년 4월 원고라고 하는데 시 「혼수」 역시 비슷한 시점인 1938년 4~5월의 소회를 담고 있다. 김용제의 연인 나카노 스즈키가 한국을 방문한 시점이 1938년 5월이고, 「혼수」는 스즈키 즉, ‘S’를 만나기 직전의 심정을 읊고 있기 때문이다.<sup>20)</sup> 일본에 있을 때 김용제는 나카노 시게하루의 누이 나카노 스즈코와 연인 관계였는데, 이 연인 관계는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카노 스즈코는 김용제를 만나기 위해

16) 김재홍, 2008 『그들의 문학과 생애: 이용악』, 한길사, 49면.

17) 윤곤강은 『시건설』 4집(1938.1)에서 좋은 시를 묻는 설문에 대해 “처녀시집 『분수령』을 내놓은 이용악군의 「북쪽」입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18) 김재홍, 앞의 책, 60-61면.

19) 오무라 마스오(심원섭 옮김), 2016 『사랑하는 대륙이여: 시인 김용제 연구』, 소명출판, 101면.

20) 위의 책, 115면.

서울로 왔으나 이미 처자식이 있었던 김용제는 나카노 스즈코와 더 이상의 만남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오늘/온다는 이 전보엔/그대의 뜨거운 기쁨이 뛰고 있고나!/S야!/그대를 기다리는/나는 지금 행복스럽다”는 구절으로 보았을 때 시 「혼수」는 스즈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이후 현실의 김용제는 연인과 헤어지고, 프로 문학과 결별하고,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프로문인이자 일본에서 활동했던 문인 김용제의 최후의 장면을 담고 있는 셈이다.

### 3. 김람인에 의한, 김람인의 이상을 향한 잡지

#### 1) 편집인 김람인과 시인 김람인의 접점

『시건설』은 동인지로 인식되었고, 동인지를 표방했지만 동인지를 동인지가 되게 하는 에콜, 경향, 사조 등 개성적 측면이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음을 ‘부실’이 아닌 ‘의도’로 판단한 것이 이상의 논의였다. 나아가 동인지가 지닌 소명 이상의 소명을 동인지 형태를 통해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 『시건설』에 대한 이상의 판단이었다. 이것은 1930년대 후반 시단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시도였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잡지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시인들에게 동인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일관된 하나의 공통점은 있다. 그것은 한창 이상적인 포부와 목표를 지니고 있을 신진 시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신진 시인들을 대변하는 인물이자 『시건설』의 주축으로서 김람인이라는 시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건설』과 김람인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시건설』은 명실상부 김람인에 의해 주도된 잡지이다. 김람인의 문학적 이상으로 인해 기획되었고, 김람인의 노력과 희생으로 발간 및 유지되었다. 편집의 주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인 김람인은 한후구와 함께, 가장 많은 시를 수록한 시인이기도 했다. 『시건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명이 바로 ‘김람인’이다.

제작 발간에서 김람인이 주도한 근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시건설』의 서지

에는 늘 “편집 겸 발행인 김익부 / 평북 자성군 중강면 중평동 489번지 중강인쇄소 / 발행사 시건설사 평북 중강진 진찬 경성 / 정가 13전”이라고 적혀 있다. 1-8집 모두 편집 겸 발행인이 김익부로 되어 있는데 김익부는 김람인의 본명이다. 적혀 있는 인쇄소 장소는 김람인의 고향과 일치한다. 김람인은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면 중평동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그 인쇄소가 서지의 ‘중강인쇄소’이다. 자신의 고향 마을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인쇄소에서 『시건설』을 발행했던 것이다. 편집이며 발행 모두 김람인이 맡았고, 집안 대소사로 바쁠 때에는 김해장이 대신했다. 편집후기도 금남(琴南) 이석훈이 7집 후기를 쓴 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람인이 작성했다. 김용제 역시 3집의 「시단시감」에서 “시건설의 주간적(主幹的) 일꾼인 람인”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후기에 가끔 등장하는 ‘해강’ 역시 김람인의 이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렇듯 김람인은 『시건설』의 주축이었다. 그런데 김람인은 민태규처럼 부호의 아들도 아니었고 집안은 가난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시건설』을 창간하고 이후 4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오로지 문학적 포부와 열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람인과 『시건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시건설』의 편집 후기에서 이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시건설』 제2집을 내놓은 후 격렬한 성원이 많았다. 이제 우리 시문학을 빛나게 키워갈 『시건설』의 임무를 다할자도 우리 젊은 시인들이 않인가?

『시건설』을 발행하는 곳의 연락(連絡)과 연장이 마음같이 못한 탓으로 늦었다. 이렇게라도 가난한 우리 시단을 부축해가는 앞날의 보무(步武)를 쉬지 않으련다. 정열(情熱)의 시인들아 끝까지 좋은 정을 경주(傾注)해다오.

- 람인(嵐人), 「편집후기(編輯後記)」, 『시건설』 2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잇는 새로운 시인들이 뛰여나와주기를 기다리여마지 않는다. 마는, 굿하여 기성, 신인의 구별은 찾지 않는다. 엄정한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다같이 이땅의 젊은 시인일 따름이다. 미미하나마 이 시건설 하나만이라도 함께 묻들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 젊은 시인들의 다같이 질며져야 할 책무가 아닌가. 시건설을 쌓아 올릴 초석이라면, 적던크던 한덩이식이라도 넌지시 저널러다오. 끝으로 동무들의 좋은 건강을 빌며, 앞으로 구김없는援助가 있어주기를 約束한다.

- 해강, 「편집후기(編輯後記)」, 『시건설』 3

편집을 맡았던 김람인과 김해강의 언급에는 공통적으로 ‘젊은 시인’이 등장한다. 젊은 시인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짚어내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젊은 시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 땅의 시문단을 키워나가자는 것이었다. 잡지 『시건설』은 빈곤한 시문단을 육성하는 초석이 되고자 했다. “편집, 인쇄, 발행을 모다 시골서하지만 우리 시문학건설(詩文學建設)의 보람있는 역할(役割)을 다하여 권위와역량있는 보조(步調)로 지구전(持久戰)을 해런다.”라고 김람인은 1집 후기에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시문학건설’이라는 목표의식이 바로 ‘시건설’이라는 잡지의 제호가 되었다. 김람인이 잡지의 이름으로 삼은 ‘시건설’이라는 제호는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여 시의 미래를 건설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건설’이라는 단어에는 신인들의 총결산, 시도라는 광의의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김람인이 ‘신인’과 ‘건설’이라는 두 요소를 『시건설』의 핵심으로 내세우게 된 이유 내지 배경은 무엇일까. 이 점은 『시건설』 4집(1938. 1)에 수록된 설문 「시단동정(詩壇動靜)」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 설문은 다음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현조선시단에 있어서 긴급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2. 최근조흔시라고 읽으신 시는 어느 분의 작업인가
3. 지금보시는 시방면의 잡지나 시서는 엿던것입니까

답변한 이는 월탄 박종화, 김용제, 안함광, 금남(琴南) 이석훈, 윤곤강, 정노풍, 김광주, 신석정, 월파(月坡) 김상용, 김광섭, 임화, 편석춘 김기림, 한효, 박아지, 김창술 총 15명이다. 이 설문은 문단의 원로, 신인 구분하지 않고 설문 대상이 폭넓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에서 박종화와 임화는 조선적인 것과 조선말의 리듬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원로진의 대표격 답변이라면 신진의 대표적인 답변으로 이석훈의 “무엇보다 시의 결여”가 긴급한 과제라는 답변, 정노풍의 “시단의 건설부터 꾀할 문제”라는 답변에 주목할 수 있다. 이석훈과 정노풍은 김람인과 교류가 있었고 또한 『시건설』에 작품을 수록한, 젊은 시인이기도 했다. 그들은 공통되게 시단의 기반이 부족하므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 시단이 빈곤하다

는 의견을 보였다. 새로운 세대를 자임하는 이 시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된 의견은 『시건설』의 출발, 나아가 김람인의 기획과도 연결되어 있다.

『시건설』 8집에도 유사한 설문이 수록되어 있다. 8집의 「시단문답」에서는 “1. 시를 쓰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우리 시단에 대하여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3. 우리 시인중에서 세 사람을 뽑아 세계일주시행기를 시킨다면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라는 세 가지 항목을 두고 설문을 하였다. 그리고 박종화, 윤곤강, 신석정, 최정희, 노자영, 이찬, 이일, 정래동, 유진오, 김안서, 유치환, 이응수, 김태오, 송순일, 한흑구, 손풍산, 김병호, 김광근, 이석훈의 답변을 수록하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시건설』에 작품을 총 6회 수록한 시인 이찬은 “그 누구것도 아닌 우리의 시를 갖고 거기서 우리의 얼굴을 보자”고 답변하고 있다. 이찬은 가장 활발히 『시건설』에 동참한 인물 중의 하나였다. 그 또한 조선 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의식은 『시건설』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이자 공동의 문제의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후반, 신진으로 활동하는 시인들은 시단이 빈곤한 시대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빈곤을 극복하는 것이 신인들의 소명이라고 판단한 김람인은 ‘건설’과 ‘신인’을 한데 묶어 『시건설』 발간에 힘썼다. 그가 일종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김람인과 호형호제하던 김해강의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2집 후기에 적힌 김해강의 말에 의하면, 김람인은 적자가 나더라도 발간해야 한다는 생각과 단 백부라도 찍어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적어도 『시건설』에 참여한 젊은 시인들은 문단 빈곤과 그 극복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김람인은 신세대 문인으로서의 인식을 직접적인 활동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그는 시문단의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인의 애콜 강화 대신 전국에 걸친 신인 시인들의 자유로운 총망라를 추구하였다.

참가 시인 중에서 평안도 출신으로는 양운한, 김람인, 김우철, 박남수, 이원우, 이석훈, 김조규를 들 수 있다. 황해도 출신의 장만영 시인, 함경도 출신의 김종한, 김광섭(金光燮), 김복원, 이찬 시인, 평양 출신의 한흑구, 장수철, 정노풍 시

인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북방 출신의 시인들이라면, 『시건설』은 최북반의 잡지이면서도 전국적인 수준의 참여를 통해 북방 일색의 범주를 극복하고자 했다. 참가 시인 중에서 충청권은 이해문, 윤곤강, 박노춘, 이가종, 마명, 이원우, 조마사, 김용제 등을 들 수 있다. 이해문, 윤곤강, 박노춘 등의 이름은 충청 지역 동인지 『시인춘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라도의 신석정, 서정주, 김해강 시인과 경남 통영의 유치환 시인까지 『시건설』은 폭넓은 지역의 다양한 시인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2집 편집후기에서 김람인은 “제2집은 실로 조선시단에서 처음보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처럼 역작들은 한데 뚱은적이 언제 있었든가?”라고 결과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적이 있다. ‘역작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라는 말처럼 『시건설』은 다양한 작품의 총망라를 추구했다. 『시건설』은 시론보다 시 작품 중심이었으며 최대한 많은 시인의 다양한 작품을 수용하려고 했다. 1930년대 후반 동인지 발간의 전체적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시건설』은 1939년 『시학』이 등장하기 이전 4년 동안 신인 시인의 작품 발표를 가능하게 한 지면이었다. 나아가 『시학』에서 1940년 『신찬시인집』이라는 시집 발간을 통해 신인 시인의 총집결체를 기획하기 이전, 신인 시인의 총망라를 시도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람인은 북으로는 함경북도부터 남으로는 경상남도까지 조선 전체의 신인 시인을 참여시키려는 의욕을 보여주었다. 원고 청탁에서 수거까지 근거리 지역의 지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구적 잡지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남에서 북까지 전체적인 문학 참여를 보여준 『시건설』의 필진 구성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도는 편집을 맡은 2인, 김해강과 김람인의 기획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시건설』 8집에 2인 시집 『청색마』를 광고하는데 그 광고 구절은 “남북 이천리. 하나는 북쪽에서 하나는 남쪽에서 십년을 하루같이 그리워하며 가장 진지한 태도로 시를 사랑하고 시로 생활해온 이가 남인과 해강 두 사람이다. 이 두 시인은 시를 쓰고 시를 읽으므로 오직 순실한 정서를 직혀왔고 옹건한 기백을 키워왔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평북 자강 출신의 김람인과 전북 전주 출신의 김해강은 각각 북단과 남단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처음과 끝이 되어 그 사이에 있는 조선 문단의 동지들을 모두 아

우르려는 이상을 꾸고 있었음을, 『청색마』 광고에서 볼 수 있다. 조선 문학이라는 이상 밑에서 남과 북이라는 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학적 포부는 『청색마』 이전 『시건설』의 기획에서부터 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건설』의 두 주축이 한 명은 남, 한 명은 북에 활동 기반을 두었으면서도 한 목표와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면이 『시건설』지의 전국적 시인 동원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참여 인물 중에는 확실히 북방 출신 시인이 더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신인 시인들의 활동을 이끌어내고 주도했다는 면에서 『시건설』의 의의와 범조선적 문단 건설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2) 김람인의 시세계와 『시건설』 기획의 일치점

『시건설』에 수록된 흥미로운 작품들 중에서도 『시건설』의 핵심적 인물인 김람인의 작품을 빼놓을 수 없다. 김람인은 『시건설』 매호에 한 편씩의 시를 수록한 바 있다.<sup>21)</sup> 편집상 거의 맨 앞자리나 맨 뒷자리에 수록되어 있다. 총 8편의 작품은 대개 북방의 기상을 강조하거나 의지와 열정을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굳이 나누자면 초반에는 자연물에 의탁해서 열정의 상징을 찾아내는 작품을 썼고, 뒤로 갈수록 ‘청색마’로 대표되는 의지의 상징물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전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2집에 실린 「황혼」을 살펴볼 수 있다.

이날의 지른 황혼을 안고  
명상(冥想)의 산마루로 내거름을 끌고가오.

어둠에 갈기 갈기 찢긴 산맥을 헤매이다  
먼-산장막에 켜진 적은 불빛에 노래를 보내오.

밤이 올때마다 황혼의 매연(煤煙)을 뚫고 소순 산우에  
언제나 빛양개 백이는 불꽃!  
내가 날뛴 마음은 그불꽃을 물고 정열(情熱)의 화관(花瓣)을 뿌리오.

21) 1-8집 수록 순서대로 작품명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름구름」, 「황혼(黃昏)」, 「우울가(憂鬱街)의 홍등(紅燈)」, 「빼치카」, 「청색마(青色馬)」, 「야행철마(夜行鐵馬)」, 「압록강」, 「홍가동」.

이 황혼에서 새벽의 책모(策謀)를 안꼬 더듬는 밤길!  
태양이 끼친 심야를 직히는 강아지떼 몹시도 짖어대지만……

황혼의 회색 하늘을 헤집고 별은 푸른하늘에 총총 해지고  
켜진 마음의등불은 황혼이 해조와같이 밀려와도 꺼지지않소.

- 김람인, 「황혼(黃昏)」 전문, 『시건설』 2

1, 2, 3집에 실린 작품은 공통점이 있다. 우선 현실의 각박함이나 고난이 강조되면서 시작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적 주체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는 시련을 안겨주는 자연물이나 지형, 날씨, 환경 등이 있는데 시가 진행되면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자세가 강조된다. 특히 고난을 주었던 자연 및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불꽃’과 같은 열정의 상징을 발견한다. 이후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시를 끝맺는다. 자연물이 산맥이냐 혹은 들판이냐, 화전이냐 띠약볕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고난에 대한 인식-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의 발견-의지에 대한 강조와 다짐’ 순으로 진행되는 것은 공통적인 패턴이다.

이 공통적인 패턴에서 “열정”(1집의 수록시), “불꽃”과 “정열”(2집의 수록시), “정열”과 “(눈)동자”(3집 수록시)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던 극복 의지는 4집의 수록시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상을 얻게 된다. 여기서 ‘빼치카’라는 난로는 “북풍”과 “눈보라”를 극복할 방법이자, 이전의 열정이 보다 강조되고 구체화된 결과물로서 등장한다. 현실 고난 극복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가 ‘빼치카’라는 구체적인 표상으로 변화한 이후, 이것이 더욱 확대되고 강조되어 김람인의 대표작 「청색마」가<sup>22)</sup> 등장하게 된다.

한여름,  
청색 천리마는  
푸른풀을 뜯고  
콸콸 흘러가는 강물을 마시다.

22) 이 작품은 이후 김람인과 김해강의 2인 시집 『청색마』(1940, 명성출판사)에 재수록된다.

『문장』지는 제2권 제8호(1940.10)에 시집 『청색마』 광고를 실어주기도 했다.

태양에 등심이 굳고  
성큼한 네다리 대지를 디지고서  
평원만리를 웅비할  
청춘의 우렁찬 홍호 소리여.

천동울고 소낙비 퍼부어도  
움직 않고 굳굳이 서서  
폭풍의 살촉처럼 날르는  
제비를 응시하는 너!

오오, 나의 애마야  
오늘- 너와 나는  
절색 대지에서  
창천을 우러러 살며  
명일에 질주할 힘을 키우자.

- 김람인, 「청색마(青色馬)」 전문, 『시건설』 5

1, 2, 3집에 수록된 작품이 고난에 허덕이는 고통스러움을 강조하면서 극복의 희망, 혹은 실마리를 찾았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희망의 어조는 확신의 어조로 바뀌고 있다. 시 「청색마」는 북방의 응흔한 기질을 십분 드러낸 작품으로서 고난의 비중이 이전보다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대신 ‘청색마’의 우렁찬 기세와 강한 힘이 돋보이고 있다. 이후 발표된 「야행철마」와 「압록강」도 비슷한 분위기에서 유사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야행열차」는 말을 열차로 바꾸었을 뿐, 파죽지세의 극복과 질주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청색마」를 위시해서 김람인의 작품을 보면 고단한 현실을 극복할 주체로서 “청춘” 내지 젊음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이야말로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이며 이 힘을 바탕으로 한 열정의 주체야말로 현실의 유일한 희망인 듯이 그는 그리고 있는 것이다. 『시건설』에 수록된 김람인의 작품이 그의 전체 작품 중에서 가장 빼어난 수작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일관성을 지키고 있으며 총 8편의 작품을 순서대로 일별했을 때 ‘힘’의 강도와 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나아가 열정과 극복 가능성에 대한 강조, 그 주체를 청춘과 힘의 존재로 보았다는 점 등은 김람인이 『시건설』

을 왜 시작하고 유지했는지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시 「빼치카」에 등장하는 난로의 「불길」, 「청색마」에서 등장하는 「말」, 「야행열차」에서 등장하는 「열차」는 모두 김람인이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 나아가 신세대로서의 짧은 시인에 대한 이미지였던 것이다. 『시건설』이 조선문단의 빈곤성을 타개할 방법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김람인의 시적 주제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에게 있어 짧은 신진 시인들이야말로 유일한 희망이었으며, 불굴의 의지를 지켜나가야 하는 소명을 지닌 자였던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한국 문학 연구는 양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놀라운 비약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에 있어 여전히 더 연구되어야 할 영역들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본고가 주목한 것은 1930년대 후반, 즉 여러 문학사가에 의해 암흑기로 규정되어 온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전쟁동원체제로 인해 억압받던 시기였지만 시정의 다양성과 가능성에 대한 지향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열정을 보여 주었다. 1930년대 후반은 낭만주의, 상징주의, 리얼리즘, 모더니즘 문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조선 문단이 지금까지의 경험치를 토대로 조선적 문학의 주체적 가능성을 꾀하던 시기였다는 것이 이 연구와 이후의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다.

본고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한 잡지를 복권하려는 목적 또한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은 『시건설』이 1930년대 후반 평북 중강진이라는 지방문단의 성과물이자 신인 문학의 성과물임을 규명하면서, 지역성과 신인 중심성이 주체가 되어 조선 문학의 주체적인 서정성을 생산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충실히 성취될 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중앙문단과 지방 문단의 불균형적 갑각의 해소 가능성이 탄진될 수 있다. 근대 문학 연구에서부터 지방문단의 가능성과 시적 성취에 대해 다양한 주목이 있을 때 오늘날 지방 문단의 의의와 성취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시건설』 전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검토 결과 이 잡지가 젊은 신인 시인들의 지면 확보라는 목적, 시단의 문제로 떠오른 창작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총결집의 의도, 문학의 새로운 주체로서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 등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건설』이 기치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인지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념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결여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논의이다. 1930년대 후반 문학계에 만연했던 작품 빈곤과 창작력 저하를 타개하기 위해서 특정 동인지보다는 같은 세대를 아우르는 범동인지적인 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신인의 총결집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와 같은 암흑기에 중강진이라는 조선 북단에서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학의 자생적 역량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시 동인지가 등장했다가 사라졌지만, 『시건설』은 무려 4년간 총 8집을 발간하면서 신인들의 문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바 있다. 나아가 이 잡지에 후대 회자되는 유명시들이 많이 발표되었다는 것, 지금까지는 이용악의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있다는 것 등에도 주목할 수 있다. 『시건설』과 그 중심인물인 김람인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많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특히 김람인은 1930년대 후반 특징적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북한 문학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문인이다. 김람인이라는 한 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시건설』은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잡지는 한국 문학사에서 1930년대 최북단, 최장기, 최대 면수를 지닌 시 동인지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

주제어 : 1930년대 후반, 세대론, 신세대 시인, 지역성, 지역 동인지, 『시건설』, 김람인

투고일(2017. 10. 28), 심사시작일(2017. 11. 7), 심사완료일(2017. 11. 23)

〈Abstract〉

A Study on Magazine of Literary Coterie ‘Si-geon-seol(시건설)’  
in late 1930’s

Ra, Min-ae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to revalue magazine ‘Si-geon-seol’. This magazine was published in the northernmost part of Joseon, eight times in four years. It is very important poetry magazine, but has not been studied much yet. Among the various literary magazines of the 1930s, ‘Si-geon-seol’ has a very unique and exceptional position.

So this study analyzes all of ‘Si-geon-seol’, and try to find out the unique character of this magazine. The magazine has three outliers: the best north, the longest period, and the largest magazine in the late 1930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magazine are evident when compared to other poetry magazine of literary coterie of the time. The magazine was definitely a magazine of literary coterie, but did not claim a particular literary ecology. The people who created this magazine were the new generation poets. At that time, the new generation poets recognized that literature of Joseon was becoming poor. The problem of poverty in poetry was a problem to be solved by the new generation of poets.

The magazine was published in a remote area of capital, new generation poets from various places actively participated. The characteristics as coterie magazine were not very clear, because poets of various tendencies have published their works and the leader of this magazine did not make a clear claim either. However, this feature is characteristic of magazines of this period. More important than literary ecole was solving urgent problems.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is magazine in the future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of new generation poets of the 1930s.

**Key Words :** late 1930’s, new generation poets, locality, literary coterie magazine, the northernmost part, ‘Si-geon-seol(시건설)’

---

\* Teaching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